“그동안 구단에 폐 끼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연봉은 주시는대로 받겠습니다.”

연봉 재계약 협상을 앞둔 ‘거포’ 최희섭(28·KIA)이 내년 연봉을 구단측에 백지 위임할 뜻을 밝혔다.

김조호 KIA단장은 6일 “최근 최희섭과 식사를 했는데 구단에 폐를 끼친 일이 많아 죄송스럽고, 내년 연봉도 구단에 맡기겠다고 했다”면서 “참 겸손하고 성실한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안 좋은일(파혼)이 생겨 안타깝다. 구단도 내년 연봉에 대해 최대한 성의를 보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최희섭이 남은 기간동안 훈련에 집중해 내년엔 좋은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흡족해 했다.

김 단장은 “내년 시즌 최희섭은 5번타자로 나설 것이다. 올 시즌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후반기엔 너무나 잘해줬다.

“구단에 폐 끼친 일 많아 죄송 내년엔 좋은 실력 보여주겠다”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섭은 올해 5월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천만원, 성적에 따른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의 조건으로 KIA에 입단했다.

최희섭은 그러나 입단 초기 부상으로 한달 이상 전력에서 제외되면서 옵션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최희섭은 올 시즌 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7, 7홈런 46타점을 기록했다.

KIA는 최희섭이 백지위임의 뜻을 밝힌 만큼 내년 활약의 기대치를 포함, 올해 연봉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예상연봉은 4억원(기본 연봉 3억 5천만원+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 면제로 지난달 23일 4주간 군사훈련을 마친 최희섭은 12월 초부터 미국에서 개인훈련에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여권발급에 문제가 생겨 현재 광주일고에서 훈련 중이다.

최희섭과 같은 면제자들의 여권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는 데 일반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관용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

최희섭은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데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걸리는 만큼 16일 이후 출국해 20일 정도 미국에서 운동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소집되는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성고 출신 야구인들 한자리에

9일 오전 야구대제전 개최 이순철씨 등 100여명 참석

“동성고 출신 야구 스타들 모두 모여라!”

‘야구 명문’ 광주 동성고(구 광주상고)가 ‘제 26회 동성고 야구 대제전’을 개최한다.

동성고 야구동문회(회장 이순철)는 9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교 교정에서 야구 대제전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순철 전 LG 감독(80년 졸업)을 비롯해 김종모 KIA 수석코치(77년 졸업), 장채근 전 KIA 코치(82년 졸업), 윤여국 동성고 감독(79년 졸업), 신동수 서울고 코치(86년 졸업), 홍현우(개인사업·90년 졸업), 김주형, 한기주(이상 KIA), 박남섭(롯데) 등 동성고 출신 야구인 100여명이 참석한다.

새롭게 야구 동문회를 이끌게 된 이순철 신임 회장은 “야구 명문인 모교의 전통과 명예를 살리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특히 동문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야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야구 동문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56년 창단한 동성고는 올해까지 전국대회에서 우승 10번, 준우승 9번을 일군 야구 명문으로 올해도 대통령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홍만, 내일 K-1 그랑프리 8강 밴너와 재격돌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이 8일 일본 요코하마아레나에서 열릴 ‘K-1 월드그랑프리 파이널 8강 토너먼트’에 출전해 격투기 강호 제롬르 밴너(35·프랑스)와 재격돌한다.

지난 해 9월 K-1월드GP 16강에서 밴너와 처음 맞붙어 연장 접전 끝에 판정패했던 최홍만은 그 때 수모를 1년3개월 만에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

최홍만은 “밴너를 이기는 것은 내 사명이다. KO로 꺾고 싶다”면서 강한 승리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금까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서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동안 최홍만은 큰 키(218㎝)를 활용해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경우 역습을 하거나 기회가 날 때 적극 공략에 나서는 아웃복싱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오사카 정도회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최홍만은 체력 강화에 몰두하면서 긴 다리를 이용한 니킥과 미들킥으로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반복해 왔다.

최홍만은 또 생애 처음으로 K-1 결승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최홍만이 밴너를 이긴다면 세미 쉴트(34·네덜란드)와 글라우베 베이토자(34·브라질) 8강전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女力士 장미란 10일 일본 전훈

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 장미란(24)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 구슬땀을 흘린다.

대한역도연맹은 6일 “장미란을 포함한 여자 대표 5명과 남자 대표 12명 등 국가대표 17명이 역도 대표팀 코칭스태프 6명과 함께 10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로 떠나 24일까지 전지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장미란은 이로써 지난 달 12일부터 중국 푸젠성 역도 트레이닝센터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지난 1일 귀국한 지 9일 만에 다시 해외로 떠나게 됐다. 일본 대표팀 전지 훈련지로도 유명한 가나자와시에서 장미란 등 한국 역도 대표팀은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력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승우 여자 역도 대표팀 감독은 “장미란이 중국에서 힘든 훈련을 받아 약간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전지훈련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기 보다 몸을 다시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FA 전원 팀 잔류 가능성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한 선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전원 원 소속구단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FA 시장도 조용히 폐장을 준비 중이다.

올해 FA를 선언한 선수는 모두 6명. 그 중 조인성과 류택현이 소속팀 LG와 우선협상을 거쳐 잔류를 택했다. 4년 최대 34억원, 3년 최대 6억4천만원 등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부터 이재주(KIA)와 이호준, 조웅천(이상 SK)은 타구단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고 두산으로부터 역대 FA 최고 금액인 62억원을 확보한 최대어 김동주는 일본 진출과 두산 잔류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롯데와 협상이 결렬된 이호준은 SK에 남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고 김재박 LG 감독과 현대에서 인연이 있던 조웅천은 LG가 FA 영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SK로 다시 돌아가야 할 처지다.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7개 구단과 협상은 7일 종료되고 8일부터는 다시 전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새 둥지를 찾지 않은 네 선수는 타구단 이적보다 소속구단 잔류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주의 거취가 가장 관심을 끄는데 지난달 말 일본 각 구단이 전력 정비를 모두 마쳐 갈 곳을 찾기 쉽지 않은데다 두산이 제시한 거액도 무시할 수 없어 두산 유니폼을 계속 입을 공산이 크다.

프로야구선수협 회장에 롯데 손민한 투수 선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6일 오전 제주시 한라병원 대강당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으로 롯데 투수 손민한(32·사진)을 선출했다.

손민한 신임 회장은 이종범(KIA) 전 회장의 뒤를 이어 2년간 선수협을 이끈다.

2001년 15승과 2005년 18승으로 두 차례 다승왕을 차지했던 11년차 손민한은 올 시즌에는 13승10패, 평균자책점 3.34를 기록했다.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이종욱(두산)과 최규순 심판이 올해의 선수와 심판상을 각각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송원여상·여중 배구팀 해체 철회

학원측 “새 지도체제 갖춰 제2의 도약” 선언

해체 위기에 놓였던 광주 송원여상·여중 배구팀이 해체 계획을 철회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6일 “학교법인송원학원 고제철 이사장과 만나 기존대로 선수 육성과 스카우트, 훈련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송원학원은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후 공석이었던 송원여상 감독에 윤권형 감독을 선임하고, 코치를 물색중이다.

또 여중은 기존의 박상영 감독과 부산 남성여고 코치를 지낸 양영홍코치를 새롭게 영입,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췄다.

시 교육청도 전지 훈련비 등 예산과 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송원학원은 배구팀이 청소년 대표를 다수 보유할 만큼 전국 최강 전력을 갖췄음에도 지난 광주 전국체전에서 예선 탈락하는 등 최근 성적이 부진하자 팀을 해체하기로 했었다.

1978년 창단된 송원여상·여중 배구팀은 대통령배, 전국체전, 대한배구협회장기 등 주요 대회를 휩쓸며 광주 여자배구의 명성을 전국에 떨쳐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7일(금)

▲2007 한국실업마스터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12 : 00·KBS N SPORT)여자 단식 결승(14 : 00·KBS N SPORT)

▲2007 농구대잔치 결승(14 : 50·SBS스포츠)

▲2007 렉서스컵 첫째 날(15 : 00·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KTF : SK〉(18 : 50·SBS스포츠) 〈전자랜드 : KCC〉(18 : 50·X-PORT)

8일(토)

▲2007 PGA 메릴린치 슛아웃 첫째날(15 : 00·SBS골프·SBS스포츠)